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전단계에 따른 변화*

윤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 머리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누구나 고립되어 살아갈 수는 없으며 출생직후부터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어울려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인간관계형성을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으로 성장·발달함에 따라 가족구성원, 가족 밖의 타인, 학교의 동급생, 직장동료 등으로 그 우정관계 형성의 영역을 넓혀간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흔히 비슷한 연령·사회 경제적 지위·취미·태도·성격 특성 그리고 신체적 용모 등에 따라 형성되기도 하지만, 간혹 반대되는 특성과 성격을 지닌 사람끼리 어울리기도 한다. 여하튼 개인은 누군가와 함께 친밀하게 지내게 되고 그러한 대상이 없는 경우 고립된 사람, 혹은 사회의 주변적 인물(marginal man)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더 나아가서 개인의 정신 건강 수준을 위협하게 된다.

우정관계(友情關係: friendship)의 기능과 역할이 이론 및 실제의 두 측면에서 이와 같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리학·사회학 등에서 그다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오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두고 다음 두 가지 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984년 정월과 2월 전체 겨울 방학동안 자료수집, 문헌정리 등이 논문작성의 전과정을 통해 헌신적으로 도와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윤창군과 이은주양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

첫째, 우정관계의 정의, 형성과 유지의 과정, 그 구성요소의 내용과 기능을 탐색한다.

둘째, 발달단계에 따른 우정관계의 기본내용과 의미를 탐구한다.

2. 우정관계의 본질

(a) 정 의

국어대사전(이희승편, 1982)에는 「친구」를 「오래두고 가까이 사귀는 벗」(p.2865)이라고 간단히 정의하고 있다. 이는 우정관계 형성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됨을 뜻하며, 「가까이 사귀는」다는 말에도 여러 가지 친밀하고 밀접한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또 「벗」이라는 말은 더불어 같이 상호작용을 할 상대자(partnership)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우정의 본질을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개인적 수준(personal entity)의 관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정관계란 누구의 요청이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관계이며, 서로간에 믿고 의지하며 물질적 혹은 감정적 교환을 맺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또한 이 관계는 사회계층이나 제도에 의한 공식적(公式的: formal)인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준에서 형성하는 비공식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

우정관계 형성에 대하여 정신분석학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 우정이란 “목표획득이 금지당한 성충동이거나 목표획득이 금지당한 애정(friendship or friendliness is aim-inhibited sexuality or aim-inhibited love)”을 말한다(Rangell, 1963). 이 정의를 자세히 고찰해보면, 개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본능적인 성충동의 표현인데, 이와 같은 목표를 현실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우정이란 형태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무엇을 위하여 친구를 사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우선, 친구란 개인이 성충동 및 공격충동을 표출할 때 이를 받아줄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자기 친구를 향하여 성충동 혹은 공격적 충동을 발산하면 그 친구는 이러한 충동의 발산을 받아들이는 태세 즉,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둘째, 친구간에 서로 깊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일어날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갈등 상태를 회피하지 않고 같이 나누는 사이가 된다. 셋째, 친구들은 칭찬이나 찬사를 통하여 서로 자존심의 강도를 높여주고, 또 그러한 자존심의 강도를 높여 줄 수 있는 활동을 더욱 추구하게 된다.

(b) 우정관계의 기본요소

「우정」이란 심리학적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요소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리하여 그 분류방법 역시 아직 일정한 통일성이 없으나 최근까지 요인분석방법 등을 이용하여 밝혀낸 결과를 보면 다음 몇가지 방향으로 그 유효성을 그려볼 수 있겠다.

1) **Canfield**와 **La Gaipa**의 분류; 대인간의 매력관계를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힘의 원천(power resource)이란 측면에서 접근한 Canfield와 La Gaipa(1970)는 우정관계 깊이의 정도와 그 구성요인을 독특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우정관계의 정도를 “가장 친한 친구(best friend)”, “가까운 친구(close friend)”, “좋은 친구(good friend)”, “사회적인 면에서 아는 사람(social acquaintance)”, 그리고 “우연히 아는 사람(casual acquaintance)”으로 나누고 이들 다섯 단계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8가지의 기본요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진실성(genuineness)…친구는 솔직하고 개방적이며, 우회적이지 아니라 직선적인 것을 기대한다.

㉡친밀가능성(intimacy potential)…서로 감정적으로 친밀해지기 쉽다.

㉢수용(acceptance)…서로간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자세와 관심(unconditional positive regard)을 베푸는 것인데 이는 이타행동과 연관된다.

㉣유용가능성(utility potential)…우정관계가 깊어갈수록 서로 비용과 희생이 많아지더라도 참고 견디어 낼 수 있다.

㉤자아-강화(ego reinforcement)…친구는 동정이나 감정이입과 같은 형태로 상대방의 자아강도를 높여줄 행동을 한다.

㉥존경과 경탄(admiration)

㉔ 유사성

㉔ 의식(儀式)적인 사회적 교환(ritualistic social exchange)···생일·크리스마스 때 등에 선물을 주고 받는 등 그 문화와 사회에서 정해진 어떤 규범을 따르는 것 등이다.

2) Lowenthal, Thurnher와 Chiriboga의 분류(1975); 고교 졸업반, 신혼 부부, 중년성인, 그리고 은퇴직전의 노인 등 네가지 인생단계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성인생활 연구에서 다음 6가지 요소를 우정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㉕ 유사성(similarity)차원···흥미, 태도,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의 유사성과 공통성을 말하는데 이는 우정관계의 외형적인 근거가 된다.

㉖ 상호성(reciprocity)의 차원···친구간에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자세 등을 말한다. 이는 특히 “상호간의 신뢰감(mutual trust)”에 근거를 둔 것이다.

㉗ 양립가능성(兩立可能性: compatibility)의 차원···친구간에 서로 별다른 다툼이나 갈등이 없이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측면을 말한다. 즉, 친구간에 편안한 마음자세로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 어느 정도 좋아하는가(likability)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㉘ 구조적 차원(structural dimension)···이는 우정관계의 내용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측면들로서, 거리의 근접성, 사귀어온 기간, 우정관계로 인한 유리하고 편리한 점등이 그것이다.

㉙ 역할모델(role model)의 차원···이 차원은 친구를 나 자신의 모델로 삼아 행동하게 되는 측면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에겐 여러가지 이상적인 행동과 태도, 누구나 달성하고자 하는 갈망이나 특성들, 그리고 외경(畏敬)과 존경심 등이 포함된다.

㉚ 기타의 차원···이 차원에는 위의 다섯 가지 차원에 속하지 않은 기타의 속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친구가 가진 독특한 신체적·경제 사회적·성격적 특성 등이 포함된다.

3) Wright (1969, 1978)의 분류; Wright는 우정관계에 대한 두 가지 커다란 기준을 ① 상호의존의 정도(VID; voluntary interdependence)와 ② 개인적인 준거(PQP; person-qua-person)로 구분하였다. 상호의존의 정도에서는 친구간의 어느 한 사람의 계획, 행동, 그리고 결정이 다른 한 사람의 계획, 행동, 그리고 결정에 따라 어떻게 좌우되는

가를 보는 것이다. 또 두번째의 주관적·개인적 증거에는 친구들이 상호간에 독특하고 진실하며 또 다른 어떤 사람과도 대치(代置)할 수 없는 관계로써 그들 사이에만 독특하게 반응하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므로 전체 우정관계는 이 두가지 차원을 모두 묶은 것을 말하게 된다.

그리고 Wright(1977)는 우정관계가 일단 형성된 이후의 유지 및 계속(maintenance)의 문제를 하나의 독립된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형성된 우정관계를 유지·계속해 나가려면 갈등과 긴장이 빈번히 생겨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이러한 긴장감과 불쾌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중화시킬 특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이 긴장이나 갈등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활동이 많이 요구되면 될 수록 이 우정관계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차원이 우정유지의 곤란성(DTM ; Difficult-to-maintain)이다.

그런데 Wright(1969)는 더 나아가 우정관계의 가치(values of friendship)를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파악함으로써 우정의 기본요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① 자극의 가치(stimulation value)란 친구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을 하도록 어떤 자극을 주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현재의 지식과 행동의 개선은 물론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확장시키도록 해주는 가치를 말한다.

② 이용의 가치(utility value)란 개인이 자기의 목적 달성과 요구해결을 위하여 그 친구가 시간·노력·기타 여러 가지 다른 자원을 동원하여 기꺼이 협조해 줄 것으로 보이는 정도를 말한다.

③ 자아지지 가치(Ego support value)란 개인이 스스로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란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의 친구가 격려·지지·협조해주며 더 나아가서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④ 자아재확인 가치(self-affirmation value)는 개인이 스스로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특징이나 속성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그 친구가 촉진하는 반응을 계속해 줌으로써 보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와 같이 Canfield와 La Gaipa, Lowenthal 등과 Wright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더라도, 우정관계란 두 사람간의 자발성, 상호 의존성, 자존심의 존중, 자극 및 이용 가치, 그리고 인접한 거리와 같은 구조

적 특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인간관계라 할 수 있겠다.

(c) 우정과 애정의 차이

대인간의 매력(interpersonal attraction)이란 측면에서 보면 우정과 애정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애정(romantic love)은 미혼 남녀가 결혼까지 전제할 수 있는 대인간의 매력관계를 형성하는 매우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말한다. 이 때 Rubin(1970, 1973)은 애정에는 세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즉, ① 서로 유친적이고 의존하려는 욕구(affiliative and dependent need), ② 상대방을 당연히 도와주려는 본질적인 성향(predisposition to help), 그리고 ③ 여러명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 사귀는 상호배타성(exclusiveness)과 이 애정관계에 몸과 마음이 깊이 몰입되어 들어가는 경향(absorption) 등을 지적하였다.

친밀한 인간관계의 유지란 측면에서는 우정과 애정이 비슷하다 할 지라도 엄격한 의미에서 이들은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구별될 수가 있다(Wright, 1977) :

① 상호의존의 정도가 다르다. 우정의 경우에는 친구간의 의존관계가 비교적 얇고 피상적인 수준에서 깊고 친밀한 수준까지 다양하나, 애정의 경우에는 오직 친밀하고 높은 수준의 단일한 상호 의존관계만이 존재한다.

② 매력관계 유지의 기간이 다르다. 우정유지의 기간은 일정하지 않고 기복이 심하여 “영원히” 유지한다는 전제가 없으므로 별다른 고통 없이 뒤돌아지거나 끊어지다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애정은 우선 “영원히” 지속될 것을 전제로 형성된 매력관계이다.

③ 대상자의 숫자가 다르다. 우정의 경우, 그 대상자가 반드시 한 사람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명의 친구와 동시에 사귈 수 있다. 그러나 애정은 적어도 우리의 문화속에서는 배타성을 요구하므로 오직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 우정관계 형성 및 유지의 과정

우정관계 형성과 유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변인이 작용하고 그 설명

하는 입장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대표적인 관점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a) 일반적인 우정형성이론

친밀한 우정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는 우선 두 가지 탐색단계(exploration stage)를 거치게 된다. 그 하나는 진정한 친구관계를 맺게될 경우의 이익과 손해(reward-cost) 관계의 구조를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하려는 잠정적 단계이며,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두번째 단계에서는 그들의 우정관계가 장래에 얼마나 안정성 있게 계속될 수 있을까를 탐색해 보게 된다(Thibaut와 Kelley, 1959). 그리하여 이들은 서로 더욱 친밀해진다는 신호를 의도적으로 교환해가면서 진정한 우정관계를 향하여 접근해 가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긍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대개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이 교차 되는 양면가감정(兩面價感情: ambivalence)도 동시에 갖게 된다(Kurth, 1970).

더 나아가서 상호간의 신의와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상호간의 성실한 자아관여(自我關與: 혹은 獻身沒入: mutual commitments)(McCall과 Simmons, 1966) 등을 통하여 우정관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특히 상호성의 기준이란 두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서로 칭찬·협조 그리고 관심 등을 베푸는 것을 말하며 만일 어느 한 사람만 친구의 역할을 다하고 다른 한 편이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해주지 않는 경우 우정의 장기적인 지속은 어렵다.

(b) 사회적 삼투이론(social penetration theory)

최근 나타난 우정관계 형성과정의 이론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Altman과 Taylor(1973)의 사회적 삼투이론이다. 이 이론은 모든 인간관계의 깊이와 넓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진척되고 발달해가는 정도를 설명한 것이다. 이는 개인이 처음에는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탐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감정을 교환할 뿐이다. 그러다가 보다 깊은 관계를 맺고 개인간의 장벽이 상당히 무너지게 되며 칭찬과 비판이 상당한 정도 교환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개인적 사생활(성생활·직업·개인적 비밀 등)까지도 공개하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 이론은 사실상 인간관계가 그 깊이의

측면에서는 양과의 접질을 한꺼풀씩 벗겨나가듯이 깊이 들어가게 되고, 또한 넓이의 측면에서는 단순한 직장동료 혹은 동급생의 수준 등 한 두 가지 영역에서 교회, 직장, 학교, 취미생활, 성생활, 재산, 그리고 저금통장 등을 공통으로 소유하거나 나눌 수 있는 수준에까지 그 영역이 넓어져 간다는 것이다.

(c) 자기노출(self-disclosure)

개인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노출이 있게 되고(Jourard, 1958) 또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각자의 비밀, 감정, 진정한 자아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이는 우정관계 형성과 유지의 기본적 요소가 된다. 이 때 자기노출은 두 가지 조건이 있게 되는데, 하나는 서서히 적절한 속도(pace)와 순서를 거쳐 확대시켜야 하며, 또다른 하나는 친구 두 사람이 서로 비슷한 정도로 자기노출을 하게 되는 상호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우정관계의 기본 전제인 「진정한 신뢰감」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너무 빠른 속도로, 혹은 너무 많은 자기노출을 경험하게 되면 그 우정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Walker와 Wright(1976)의 실험 결과를 보면 자기노출의 효과에 있어 남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정관계 초기에 있어서 여자의 경우는 타인이 자기노출을 많이 할수록 더 깊은 우정을 느끼게 되지만, 남자의 경우는 자기노출의 깊은 정도가 우정형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남자의 경우 지나친 자기노출은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d) 자존심의 증가와 감소(gain-loss theory of self-esteem)

대인관계에서 상호매력을 증진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자존심의 증가와 감소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Aronson과 Linder, 1965; 윤진, 1981).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항상 칭찬해주는 사람보다는 처음에는 중립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긍정적평가를 증가시켜 가는 사람을 더욱 좋아하게 된다. 또 처음부터 우리를 부정적 혹은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보다는 처음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다가 그 정도가 감소하여 나중에 부정적으로 이행해가는 사람을

우리는 더 싫어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는 “가까운 친구가 우리와 관계가 없거나 처음만난 사람보다도 우리의 감정을 더 쉽게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예견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서로 가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 평가를 해주어 왔으므로 그 칭찬이나 호의의 정도가 이미 최고의 수준에 달하여 더 이상 자존심의 증가 효과(gain effect)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한두 마디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더 이상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주지 못할 때는 자존심의 감소효과(loss effect)가 크게 작용하여 서운하고 불쾌한 감정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정이 장기간 안정된 상태로 지속되게 하려면 친구간에 자존심의 감소효과가 가능한 한 적도록 하고 그 증가 효과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친구나 가족 등의 경우 항상 증가효과만을 제공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솔직한 태도」위에 개인들은 각자가 베풀어줄 수 있는 호의의 한계를 정확히 밝힘으로써 자존심의 증가-감소효과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도록 해야될 것이다.

4. 발달단계에 따른 우정관계의 변화

우정관계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는 개인의 성장·발달과 더불어 달라진다. 이는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그리고 사회적 발달의 정도에 따라 자기 이외의 타인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한 필요로 하는 친구의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동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전체 발달단계에 따른 우정관계의 형성 및 그 변화 과정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a) 아동기

아동기에 있어서 우정관계의 원천을 논의할 때 Hartup(1970)은 ① 타인과 가까이 있고자 노력하는 것(proximity seeking), ② 서로 격리하게 되면 불안 혹은 슬퍼하는 반작용을 나타내는 것(separation reaction), 그리고 ③ 활동을 통해서 서로간에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conceptual activity) 등 3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근접추구란 친구간에 서로 나누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과 양의 정

도, 우정활동의 시작과 종결에 있어서 누가 주도적인 행동을 했는가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격리에 대한 반작용 내용에는 헤어지기 싫어하는 행동적 반응, 우울증과 비슷한 무우드의 변화, 격리될 때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감정적 반응 등이 포함된다. 세번째, 개념적 활동 범주에서는 자신의 우정관계에 대한 서술, 개인적인 관여의 깊이 정도 그리고 서로 호의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정도, 우정의 깊이 등을 고려하게 된다.

(b) 청소년기

Douvan과 Adelson(1966)은 청소년기의 여자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우정관계의 안정도를 측정하였다. 청소년 초기(11~13세)에는 친구간의 상호작용보다는 단순한 활동(activity)에 중점을 두고 친구관계가 형성된다. 즉, 같이 무엇인가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이란 관념이 강하다. 그리하여 친구관계의 상호성, 깊은 감정 등은 아직 생기지 않는다. 청소년 중기(14~16세)에는 안정-충실성(security-loyalty)이 중심이 되어 서로 버림 받지 않고, 배반 당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가가 중심 주제가 된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꼭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고 비교 판단해 보기 위하여 이러한 친구의 충성심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이 가진 감정·비밀 등을 은밀히 털어놓을 대상으로서, 친구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 청소년 후기(17세 이상)에 와서는 그들은 버림받을 위협성과 불안은 중요하지 않고, 우정관계가 상당히 긴장이 이완된 상태로 되어 개인의 성격과 흥미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 국민학교 2학년부턴 중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Bigelow와 La Gaipa(1975)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 친밀성·공통된 흥미, 그리고 태도와 가치관의 유사성 등 개인적인 수준의 특징이 우정관계의 기본요건이 된다. 또 이 시기는 동료의 압력(peer pressure)이 대단히 많이 작용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시기이므로 사회적 동조행동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c) 성인기 및 전생애 발달단계에 대한 비교

발달단계에 따라 우정관계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다음 두가지가 대표적인 연구결과들이다.

1)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의 연구; 최근 미국에서 전국 규모의 사회조사를 통하여 청년기·중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있는 각각 다른 응답자들이 자신의 인생의 단계에 따라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밝히려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중년기에 비하여 청년기와 노년기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 우정관계망(friendship network)이 클수록 행복감(sense of wellbeing)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우정관계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인생의 단계에 따라 개인의 욕구 내용이 달라지고, 아울러 우정 관계를 통하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청년기에는 주로 가정 밖에서 활동하여 많은 친구를 필요로 하고 친구관계의 범위가 넓을수록 자신의 유능감(sense of personal competence)을 느낀다. 그러나 인생의 주기가 중년기로 이행해감에 따라 내부적인 가족관계 및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과 의무가 외부적인 친구관계 형성보다 더 중요해진다. 그리하여 자신과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는 주로 친족(親族)과의 관계이다. 하지만, 노년기에 이르면 자녀를 비롯한 친족들의 성장과 독립, 배우자의 사망, 정년퇴직 등을 통하여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종래에 가졌던 자녀·친족·직장 동료 및 부하와는 관계를 더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청년기에 사귀었던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거나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관계를 맺게 된다(Booth와 Hess, 1974; Hess, 1972).

2) **Gamer, Thomas**와 **Kendall(1975)**의 주장; Gamer 등은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의 우정관계와 사회적 인지(social cognifion) 능력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들은 아동기의 우정연구부터 Lowenthal과 그의 제자들이 한 성인 및 노인 우정관계망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는데 이들이 제시한 각 단계별 우정관계의 결정요인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학전아동기...학전아동기(즉 탁아소, 유아원 등)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비슷한 연령, 성, 협동심, 그리고 활동수준의 친구끼리 잘 어울려 놀고, 정신연령, IQ, 키, 외향성 등은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다. 사실상 3~4세의 아이들은 아직 인지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여 자아중심적이지만(Flavell, 1974) 서로간에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한다. 이와 같은 학전연령기의 아동들은 돌봐주는 어른이 옆에 없는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게 된다.

㉠ 국민학교 초기...국민학교 2~3학년까지의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근접성(proximity)이 가장 중요한 결정자가 된다.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거나, 같은 동네에 사는 것이 다른 요인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개인의 성격특성과 같은 보다 깊은 수준의 특성보다 단순한 외모 등과 같은 피상적인 특성(세부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판단(global judgment)에 의존하는 사회적 인지능력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6~8세 정도의 아동들은 자기 주위의 세계를 단순히 표면적 특징(surface characteristics)에 의존하여 결정할 뿐, 그런 사건의 밑바닥에 깔린 심리적 동기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Flapan(1968)에서도 밝혀진 바 있는데 6세 아동의 경우 타인의 행동에 대한 감정과 동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우정관계 형성은 주로 외형적인 특성(얼굴모양, 소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예쁜 옷을 입은 것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 아동중기(9~11세)...이 시기부터는 대인관계의 이해와 추리에서 심리적 특성을 문제시하고 사건의 인과관계를 유추할 때 그 원인을 행위자의 내부적 동기에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Scarlett, Press와 Crockett(1971)의 연구에서 보면 “그 아이는 좋은 아이, 착한 아이” 등 추상적이긴 하나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하여 친구를 만든다. 또한 타인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 동기, 그리고 심리적 인과관계 규명능력이 이 연령기에 급속히 성장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리적 특성의 이해 능력 발달로 인하여 우정형성의 주요인자가 “태도의 유사성” 등이 된다. 그리하여 9세 정도에 이르면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라도 태도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종래에 신체적 외모와 소유물, 또 기술·취미·놀이의 유사성에 의해서 친구를 결정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 국민학교 4~5학년경이 되면 외부적 행동 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심리적 특성

을 이해하고 친구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Sullivan(1953)의 대인관계 이론(interpersonal theory)과 단짝 친구관계(chumship)를 통한 대인관계 형성과정을 보더라도 이 발달·연령시기에 개인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간에 지각, 아이디어, 감정 등의 분담(sharing of perceptions, ideas and feeling)을 하게 된다.

㊤ 청소년기~성인기...Weiss와 Lowenthal(1973)이 광범위한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정관계 형성 양상을 연구한 것이 성인우정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이룬다. 이들은 각각 다른 인생단계에 처해 있는 200명 이상의 남녀를 면담 조사하였다. 이들은 고교졸업반 학생들, 신혼부부(결혼을 최근에 하여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 텅빈 등우리 시기(empty nest period)의 중년부부(막내 아이가 성장하여 출가를 하려는 정도의 연령), 그리고 은퇴직 전의 노인 등 네 집단이었다. 그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Lowenthal, Thurnher와 Chiriboga(1975)의 분류와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자들은 공통성(commonality : 성격, 가치, 태도의 유사성, 어떤 행동에 같이 참여하기)에 더욱 중점을 두고, 여자들은 상호성(reciprocity)에 더 중점을 둔다. 또 연령이 증가해 갈수록 여러 사람의 친구가 각각 그 기능을 다르게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흥미와 관심이 공통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다른 측면이 관련된다.

Lowenthal, Thurnher와 Chiriboga(1975)의 자료에서 볼 때, 4가지 연령집단 가운데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실제 우정관계(real friendship) 형성에서는 유사성(similarity)이 가장 중요하고(36%), 상호성(reciprocity 21%), 양립 가능성(compatibility : 16%), 구조적 차원(10%), 역할모델(5%), 그리고 기타(12%)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단순한 친구관계가 아니라 이상적 우정관계(ideal friendship)에서는 유사성보다는 상호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서로 어느 정도 유사한가에 따라 친구를 사귀고 있으나 이상적으로는 상호성—그 가운데서도 특히 상호간의 이해심과 수용성(acceptance)—이 중요한 변인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요소 역시 지지—신뢰(supportive—dependable)의 속성이다.

5. 노년기와 「막역한 사이/사람(confidant)」의 기능

일반적으로 노화에 따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 - 감각·지각능력의 쇠퇴, 정년퇴직, 배우자의 죽음 등 - 로 인하여 노인의 적응수준과 사기가 떨어지는 예가 많다. 그러나 가장 적응수준이 높고 건강한 사람들은 몇명의 막역한 인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노인들이다.

이와 같은 친밀감은 인간관계에서는 물론 동물에 있어서도 하나의 원초적인 동기와 갈망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특히 부모-자녀, 부부, 그리고 친구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Harlow와 Zimmerman(1959) 등의 원숭이의 「사랑의 획득」 연구, Bowlby(1958)의 애착관계(attachment) 연구, 그리고 Erikson(1950)의 청년초기의 발달과정 등에서도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년기의 적응수준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규명한 Lowenthal과 Haven(1968)의 연구는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이 제기하는 근본질문은 “노인이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이야기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인물이 주변에 있는가?”라는 것이다. 60세 이상의 노인 280명을 수년간 해마다 반복하여 면담한 결과, 노인이 갖는 사교의 범위와 사기(士氣)의 수준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작을수록 우울증 경향이 높았다. 즉, 노인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역할을 잃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 적응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비록 사회적 상호작용과 역할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막역한 사이/사람(confidant)」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자신의 친밀감을 유지할 잠재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우울증 경향이 사기의 저하를 별달리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막역한 사이/사람」이 노인의 사회적 상실에 대한 어떤 완충지대(buffer)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막역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과 역할의 감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응의 감퇴현상을 막아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7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한 노인의 경우, 막역한 사이의 타인이 주변에 없는 경우가 그런 인물이 있는 경우보다 우울증에 걸리는 수

가 3/4정도 더 많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7년 이내에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막역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심리적 적용수준이 더 높았다.

이러한 「막역한 사이」가 될 수 있는 인물은 배우자·자녀·친구가 그 대부분을 이룬다. 그리하여 부부 모두 생존한 경우보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러한 대상인물이 드물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노년기에서 특히 친구가 막역한 사이/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은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청년·장년기와 비교하여 더욱 「친밀감」을 갈망하고, 한 두 개의 사회적 역할에 제한되어 있던 노인보다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오는 노인의 친밀감이 더욱 충족되고 더 풍부해지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이 연령이 많을수록 자기가 일생 거주해오던 지역사회와 가정을 떠나 양노원 등에 이주(relocation)해 왔을 때 평균보다 사망율이 높아지는 사실에서 하나의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Aldrich와 Mendkoff, 1963). 그 이유는 사회적 상호작용 연결망(network)의 파괴와 친밀한 관계의 인물을 상실하게 되는데서 오는 충격 때문이라고 해석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노년기에 있어서 우정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6. 맺는 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심보감-교우편(明心寶鑑-交友篇)에는 우정과 인간관계의 심리적 기제들이 명쾌하게 지적된 곳이 여러군데 있다. 예를들면 「晏平仲은 善與人交로다. 久而敬之은여(孔子)」로써 「안평중은 사람 사귀기를 훌륭히 했는데, 오래도록 변함없이 공경하였다」고 말한다. 이 때 공경이란 존경심, 외경, 대인관계에 대한 꾸준한 보상과 강화 등을 말한다. 「酒食兄弟는 千個有로되 急難之朋은 一個無니라」에서는 상호의존성·도움주기·희생적인 협조를 그 기본 바탕으로 지적하고 있다. 「君子之交는 淡如水하고 小人之交는 甘若醴니라」에서도 물과 같이 담담하게 사귀어야 하며 꿀과 같이 달콤하게 사귀는 것은 오래갈 수도 없고 깊어질 수도 없다고 한다. 이 점은 자존심의 증가-감소의 이론과 상통하는 것으로써 인간이 끊임없이 상대방의 자

존심을 증가시킬 행동만 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물과같이 진지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되게 사귀는 것이 우정 유지의 기본자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미국사회의 인간관계를 묘사한 일반적인 책 가운데 Dale Carnegie의 「친구 사귀는 법」(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1937)이 특히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는 타인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남을 칭찬 많이 해주기, 남의 이야기에 경청하기 등으로 우정의 본질보다는 그 형성 및 유지의 방법과 테크닉 습득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점을 동양의 「명심보감」의 가르침과 비교해 볼 때 동서양이 우정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고 하겠다.

위에서 우리는 우정관계의 본질과 그 기본요소를 현재까지 사회 및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연구해온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우정관계는 단순히 일반적인 대인간의 매력(interpersonal attraction)의 패러다임을 따라 형성·유지된다기 보다는, 한결음 더 나아가서 개인간의 자발적인 상호의존을 통하여 정서적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둔 2인 이상의 친밀한 관계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연령증가와 인생단계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과 기능이 달라진다. 특히 우정관계와 사회적 조직망이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우리 나라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우정관계에 대한 본질과 내용, 결정요소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관찰과 이론적 추구를 통하여 우정관계의 형성·유지·단절·회복 등 우정관계의 심리학적 및 사회학적 「전체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정관계의 본질과 과정, 그리고 발달과정을 포함한 모든 측면이 부각되고 그 사회심리학적 기제의 윤곽이 더욱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윤진 번역. 현대 사회심리학개설(제 7 장 : 매력). 서울 : 탐구당, 1981
(Aronson, E. *The Social Animal*, -3rd ed.-, San Francisco : W. H. Freeman & Co. 1980).
- 이동환 번역. 명심보감 (현암신서 제 6 권), 서울 : 현암사, 1969.
-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관, 개정판, 1982.
- Aldrich, C. K. & Mendkoff, E. Relocation of the Aged and disabled : A mortality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1963, 11,(3).
- Altman, I. & Taylor, D. A.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3.
- Aronson, E. & Linder, D. Gain and loss of esteem as determinants of interpersonal attractive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65, 1. 156-171.
- Bigelow, B. J. & La Gaipa, J. J. Children's written descriptions of friendship: A multidimens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975, 11, (1), 857-858.
- Booth, A. & Hess, E. Cross-sex friend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4, 36, 38-47.
- Bowlby, J.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1958, 39, 350-73.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 Canfield, F. E. & La Gaipa, J. J. Friendship expectations at different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friendship.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uisville, Kentucky, USA, April, 1970.
- Carnegie, D.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New York : Simon & Schuster, 1937.
- Douvan, E. & Adelson, J.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 Wiley, 1966.
- Erikson, E. H.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1950.

- Flapan, D. *Children's understanding of social interac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68.
- Flavell, J. H. The development of inferences about others. In T. Mischel (Ed.). *Understanding other persons*, New York: Rowan & Littlefield, 1974.
- Gamer, E., Thomas, J. & Kendall, D. Determinants of friendship across the life span. In Reblsky, F. *Life, the continuous process*. Ch. 9. New York: Knopf, 1975, P. 336-345.
- Harlow, H. F. & Zimmerman, R. R. Affectional responses in the infant monkey. *Science*, 1959, **130**, 421-32.
- Hartup, W.W. Peer interaction and social organization. In P.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2). New York: Wiley, 1970.
- Hartup, W. W. The origins of friendship. In Lewis, M., & Rosenblum, L.(Eds.). *Friendship and peer relation: the origins of behavior* (Vol. 3). New York: Wiley & Sons 1975.
- Hess, B. Friendship. In Riley, M. W., Johnson, M., & Fonner, A (ed.). *Aging and society*, (Vol. 3, *A socialization of age stratification*) P. 357-393.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2.
- Lowenthal, M. F., Thurnher, M., & Chiriboga, D., and associates. *Four stages of life*, San Francisco: Jossey-Bass, 1975.
- Rubin, Z. Measurement of romantic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0, **16**, 265-273.
- Rubin, Z. *Liking and Loving*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3.
- Scarlett, H. Press, A. & Crockett, W. Children's descriptions of peers: a Wernerian development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1971, **42**. 439-453.
- Sullivan, H. S.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1953.
- Thibaut, J. W. & Kelley, H. H.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Wiley, 1959.
- Walker, L. S. & Wright, P. H. Self-disclosure in friendship.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976, **42**, 735-742.
- Weiss, L. & Lowenthal, M. Perceptions and complexities of friendship in four

stages of the adult life cycle. Proceedings of the 81st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73, 8, 777-778.

Wright, P. H. A model and a technique for studies of friendship.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69, 5, 295-309.

Wright, P. H. Toward a theory of friendship based on a conception of self.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978, 4, 196-207.

ABSTRACT

Friendship : The nature and its change over life-span

Gene H. Y. Yoo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Friendship is one of the basic interpersonal relationships. Until these days, however, this concept has not received enough attention.

In this literature review, the definition, nature and basic components of friendship have been discussed. And the difference between friendship and romantic love, and the mechanism of friendship formation, -i.e., social penetration, self-disclosure, and the gain-loss theory of self-esteem are explained.

In addition to the general nature and process of friendship, the difference among different life stages of change of the relationship over the life-span is reviewed. Especially, in childhood and aging, the need of friendship is increasing.

Finally, the importance of confidants and social network in late adulthood and aging is emphasized.